



‘광주지역 4개 대학 총동창회 친선골프대회’ 성료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주관...“지역 사회 발전 위한 협력 기반”

광주지역 주요 대학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과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대학교 총동창회는 4월 18일 전남 무안군 무안컨트리클럽에서 ‘2026 제17회 광주지역 4개대학 총동창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가 주관했으며, 각 대학 총장과 총동창회장, 주요 동문 총 16개 팀이 참가해 친선 라운딩을 펼쳤다.

대회 결과 메달리스트는 71타를 기록한 나정언 호남대동창회 이사에게 돌아갔다. 당초 김재봉 전남대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이 70타를 기록했으나 메달리스트를 양보해 의미를 더했다.



류혜경 회장과 서영숙 상임부회장, 이근배 총장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단체사진

신페리오 우승은 68.6점을 기록한 정계두 광주대동창회 금

용위원장, 준우승은 70점을 기록한 임옥근 광주대동창회 사

무총장이 수상했다. 룡기스트는 272m를 기록한 이석진 조

선대동창회 상임이사, 니어리스트는 1cm를 기록한 서영숙 전남대동창회 상임부회장, 행운상은 서종석 호남대 행정처 차장이 받았다.

류혜경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은 “이번 대회는 4개 대학 동문 간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시너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4개 대학 총동창회 친선골프대회는 2007년 처음 시작됐으며, 광주대·조선대·전남대·호남대 순으로 주관을 맡아오며 지역 대학 동문사회를 대표하는 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사 - 류 혜 경 총동창회장

“동문이 자랑스러운 대학, 대학이 자랑스러운 동문사회”



류 혜 경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존경하는 전남대학교 동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류혜경입니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을 50만 동문과 함께 자축합니다.

먼저, 지난 70년 동안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 총장님과 역대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문선·후배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6년 창립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는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 모교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온 자랑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정치·경제·교육·문화·과학·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빛나는 성취를 이루어 온 수많은 동문들은 ‘진리·창조·봉사’라는 전남대학교의 정신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70년은 도전과 극복의 역사였습니다.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동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모교를 지켜왔고, 특히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 동문들은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그 숭고한 발자취가 있었기에 오늘의 전남대학교와 총동창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7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동문사회의 연대와 협력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총동창회는 세대와 지역, 분야를 넘어 모든 동문이 함께 연결되는 열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청년 동문들에게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고, 선배 동문들에게는 자긍심과 보람의 공동체가 되며, 모교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대학으로서, 광주·전남의 미래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70년의 역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의 헌신과 후

배들의 열정, 그리고 동문 모두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념식이 지나온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남대학교총동창회는 “동문이 자랑스러운 대학, 대학이 자랑스러운 동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을 자축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립70주년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전남대학교 음악회’ 성황

오형석 이사장(탐솔라그룹 회장) 후원으로 5월 12일 열려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전남대학교 음악회 모습



음악회에 참석한 류혜경 총동창회장, 이근배 모교 총장, 오형석 이사장



새 동백호 관람행사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전남대학교 음악회’가 5월 12일 여수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전남대학교 창학 117년, 개교 74년, 총동창회 창립 70년, 여수대학교와의 통합 20주년을 기념해 총동창회에서 마련했으며, 여수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화합의 무대로 꾸며졌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총동창

회 오형석 이사장(탐솔라그룹 회장)이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음악회에는 전남대 출신으로 양지은 ‘미스트롯2’ 우승자를 비롯해 최성수, 윤진우, 황우림, 김산옥 등 인기가수와 테너 윤승환·김지운, 전남대 음악학과 동문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통합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

서는 여수캠퍼스를 수산·해양과 첨단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강소캠퍼스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선포식과 함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또 모교 대학본부에서는 ‘발전기금 기부자의 벽 제막식’을 개최했으며, 기념식 이후에는 대학 실습선 ‘새 동백호’ 관람 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동문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통합 20년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도 여수캠퍼스 청경마루와 여수시의회 작은갤러리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2006년 여수대학교와 통합한 이후 수산·해양 특성화 역량과 거점국립대 기반을 결합하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여수캠퍼스는 통합 이후 장학금과 연구비, 국제학술 논문 실적 등에서 큰 폭의 성장을 이루며 지역과 함께 발전하

는 캠퍼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오늘이 자리가 지나온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대학교총동창회는 ‘동문이 자랑스러운 대학, 대학이 자랑스러운 동문사회’,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2026년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연번	기간	내 용	장 소
1	연중	• 새병원 건립을 위한 벽돌쌓기 모금 캠페인 (1장당 20만원, 광주은행 1107-021-552813 전남대총동창회)	
2	3/10(화)	• 회원명부 발간	
3	연중	• 온라인행사 (70주년 기념 공식 SNS 콘텐츠 캠페인 이벤트)	
4	4월~11월	• 재학생 대상 아카데미 개설 (창업과 특수직 공무원 채용 설명)	도서관 별관 취업강의실
5	5/12(화)	• 여수캠퍼스 통합20주년 기념행사 및 여수시민과 함께하는 전남대학교 음악회	여수캠퍼스
6	5/13(수) ~6/12(금)	• 사진전시회	전남대 스토리움
7	5/16(토)	• 09:30~12:00 민주길 평화걷기	구)본부 앞 민주길
8		• 12:00~12:40 주먹밥나눔	구)본부 앞
9		• 12:40~12:50 이율식 도지사 기념조형물 제막식	구)본부 앞
10		• 13:00~14:00 창립70주년 기념식	용봉홀
11	5/18(월) 13:40 예정	• 기억을 주제로 한 민주공원 준공식 - 정원조성 - 5·18 당일 정문 상황을 그림으로 재현 - 5·18 재현 그림을 조형물로 설치	정문 앞 녹지
12	5월중	• 총동창회 70년사 편찬	
13	가을	•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전남대학교 음악회	용봉캠퍼스
14	11월	• 용봉대동풀이 동창회 부스 운영	

※ 행사문의 및 참여접수는 전남대총동창회 사무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062-528-9946, 이메일 cnud@daum.net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새병원 건립 위한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참여자 인터뷰

■ 이학영(국문·71) 국회부의장, 서삼석(NGO협동과정 박사) 민주당 최고의원

“지역민 책임질 최첨단 병원 건립 염원”



이학영



서삼석

이학영(국문·71) 국회부의장과 서삼석(NGO협동과정 박사) 최고의원인 새병원 건립을 위

한 벽돌쌓기 모금 운동에 힘을 보탤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새병원 건립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하는 전남대 병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전하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지역의료·필수의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벽

돌쌓기와 같이 새병원 건립을 위한 지역민들의 절실한 성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삼석 최고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 격차 문제가 절박한 광주·전남의 의

료 현실에서 전남대 새병원 건립이 지역민의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서삼석 최고 의원은 지역민을 책임질 최첨단 병원 건립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힘을 보탤 뿐이라며 동문 뿐 아니라 지역

민 누구나 폭넓게 참여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전남대학교 총동창회가 추진하는 ‘새병원 벽돌쌓기’ 캠페인은 노후 병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갖춘 새병원 건립을 위해 동문과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강대욱(토목공학·58)	100만원	김윤섭(최고산업전략·71)	100만원	박양수(임학·70)	20만원	유두석(정치외교·71)	20만원	임선진	20만원	조정오(광주공고동창회)	20만원
강영남(정치외교·68)	20만원	김윤순	20만원	박응렬(농학·77)	100만원	유선영(국사교육·83)	20만원	임현정(컴퓨터전공·94)	20만원	주성범(미술·92)	20만원
강위원(국어국문·94)	50만원	김재봉(국어국문·70)	20만원	박지민(철학·09)	20만원	윤경철(의학·88)	100만원	임현준(교육대학원)	100만원	주순선(공법·86)	20만원
강은미(해양·89)	20만원	김재웅(경영·88)	20만원	배수진(사회·87)	20만원	윤보라	20만원	자연대동창회	500만원	조철균	20만원
강지영(영어영문·93)	10만원	김재화(경관·33기)	20만원	변영혜	20만원	윤승기(행정·86)	20만원	장상문(농공학·81)	20만원	지영배(국민윤리교육·88)	20만원
강훈열(사법·86)	60만원	김재희	20만원	부윤경	100만원	윤석기	20만원	장산아(간호·03)	20만원	차상현(산림자원·14)	20만원
고문석	30만원	김재희	20만원	서삼석(NGO협동박사·03)	100만원	이광호	20만원	장원의(의학·65)	40만원	천득염(건축공학·73)	40만원
고재창	20만원	김정기	20만원	서원오(광주공고동창회)	20만원	이도향	20만원	장 희(화학공학·77)	200만원	충동찬산악회	100만원
곽민재(자율·10)	5만원	김정길(의학·67)	100만원	석동성	20만원	이명현	20만원	전경진	50만원	최OO(화학공학·65)	20만원
구동주(경제·82)	100만원	김정희(행정·86)	2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0만원	이병철(정치외교·87)	100만원	제36대총학생회	100만원	최경주	100만원
구용문(경영·72)	100만원	김재성(경영·86)	500만원	소영호(경치·24기)	1,000만원	이상봉	20만원	제54대총학생회	20만원	최무성	20만원
기갑서(농업경제·68)	2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300만원	송광천	20만원	이상소(행정대학원·08)	100만원	제55대총학생회	20만원	최승훈(공업화학·84)	100만원
김경현(광주공고동창회)	20만원	김종욱	5만원	송선형(간호·86졸)	20만원	이성길(법학·78)	20만원	정년기(수의학과·70)	40만원	최안성(축산·82)	20만원
김길남(지리교육·77)	100만원	김종해(지리교육·81)	100만원	송태복(의학·71)	100만원	이 신(의학·95)	20만원	정동일(무기재료·86)	60만원	최영삼(광주공고동창회)	100만원
김덕봉(일반)	100만원	김춘심(간호·81졸)	20만원	신수정(사회문화복지정책·19)	20만원	이영호(광주공고동창회)	20만원	정병대(광주공고동창회)	20만원	최영종(경치·10기)	1,000만원
김남전(경제·60)	20만원	김택수(경제·72)	20만원	신승환(제54대 총학생회장)	20만원	이유근(의학·61)	100만원	정봉현(농화학·66)	500만원	최윤생(광주공고동창회)	20만원
김민수(광주공고동창회)	20만원	김혜영(간호·91)	100만원	신영석(광주공고동창회)	40만원	이윤모(행정·79)	30만원	정순근(행관·23기)	100만원	최정원(농업경제·70)	1,000만원
김병욱	20만원	남상욱(간호·68)	20만원	신행원(광주공고동창회)	40만원	이인호(법학·92)	20만원	정순남(행정·79)	20만원	최정진	20만원
김보곤(경치·97기)	100만원	노동일(행정·73)	1,000만원	심재곤(철학·75)	100만원	이경춘(법학·76)	200만원	정승운(일어일문·83)	20만원	최주성	13,500원
김보현(금속공학·79)	1,000만원	노동대(경치·77기)	40만원	심재윤(농학·71)	20만원	이재동(광주공고동창회)	100만원	정양석(물리·76)	100만원	최중구(건축·70)	100만원
김부용(화학공학·71)	20만원	노동규(광주공고동창회)	100만원	안규문	100만원	이정일(무기재료공학·85)	20만원	정인호	20만원	최화갑(명예회원)	100만원
김성민(무역·87)	500만원	류옥렬(화학공학·83)	100만원	안미선	20만원	이종만(광주공고동창회)	20만원	정인재(토목공학·65)	500만원	최희동(원예학·74)	500만원
김성철	20만원	류재권(공업화학·85)	400만원	안정옥(간호·77)	20만원	이지연	20만원	정일안(고분자·92)	20만원	한성수(회계·82)	20만원
김양현(철학·80)	50만원	류해경(의학·76)	3,000만원	안현영	100만원	이진희	20만원	정재정(수학·82)	20만원	허 웅(경영·84)	20만원
김영남	20만원	문성철	100만원	양광섭(자원공학·75)	20만원	이학영(국어국문·71)	100만원	정준택(정치외교·79)	20만원	허 정(의학·70)	1,000만원
김영술(회계·81)	20만원	박금수(경영·97)	20만원	오성개(금속공학·76)	20만원	이한민	20만원	정준형	20만원	홍은화(독어교육·83)	100만원
김영필(조경·88)	20만원	박동균	100만원	오순옥	40만원	이효석(의학·01)	100만원	정철진	20만원	홍후표(광주공고동창회)	100만원
김영휘(광주공고동창회)	20만원	박동만(교육대학원·96)	20만원	오용규	20만원	일구회	200만원	정호재(기계공학·79)	20만원	황근수(법학박사·99)	20만원
김옥열(신문방송·85)	20만원	박래전(경관·34기)	20만원	오재규(화학공학·72)	600만원	임년식(토목공학·58)	20만원	조기선(행정·86)	20만원	황선욱(의학·66)	20만원
김용덕(법학·18)	20만원	박영숙(국어국문·98)	20만원	오하늬(환경공학·10)	20만원	임만택(농화학·67)	20만원	조영기	20만원	황순영(영어영문·76)	20만원
김용환(수의학과·85)	100만원	박성원(농공학·91)	20만원	오형석(불어불문·83)	2,000만원	임미선(국사교육·89)	100만원	조영록	20만원		
김웅기(섬유공학·70)	2,000만원	박숙령	200만원	유경연(의학·70)	100만원	임재영	100만원	조영숙	20만원		

(2026년 5월 8일 기준)



2026년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창립 70주년 기념

전남대 새병원 건립을 응원하는 특별회비 모금

지역사회 숙원 전남대 새병원 건립 - ICT 기반 스마트병원으로 (벽돌 한 장 쌓기 운동)

[참여방법]

- 모금기간 : 2025년 11월 ~ 2026년 12월
- 모 금 액 : 벽돌 1장당 20만원 (여러장 가능)
- 계 좌 : 광주은행 1107-021-552813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입금시 이름, 출신학과 등 기재)
- ※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은 전남대총동창회 사무처(062-528-9946)로 연락 바랍니다.



“5·18 헌법에 담아야”... 민주주의 ‘출발점 복원’ 촉구

전남대학교 구성원 모교 민주마루 앞에서 합동기자회견

전남대학교 교수·학생·교직원·동문이 5·18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민주주의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는 문제로 규정하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전남대학교 구성원단체(교수·학생·교직원·졸업생)는 4월 23일 이날 오후 2시 전남대 민주마루 앞에서 ‘5·18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에 여야는 초당적으로 동참하라’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의 개헌안 의결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초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헌법과 헌법 전문의 의미를 짚으며, 이번 개헌의 본질을 ‘정체성의 복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행 헌법 전문이 1987년 개정 당시의 역사



적 한계로 인해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헌은 그 미완의 과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민주항쟁은 국가권력의 불법적 폭력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저항과 연대로 이어진 살아있는 가치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는 것은 과거를 기리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

조했다.

최희동 본회 수석상임부회장은 합동 기자회견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민수 전남대 교수회장은 “헌법 전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이라며 “이번 개헌 과정에서 5·18 정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규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5·18 정신 계승을 약속해 온 정치권의 발언을 상기하며,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합의와 함께 개헌안 의결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5·18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촉구, 전남대학교 구성원 합동기자회견

5·18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에 여야는 초당적으로 동참하라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는 선언이다. 헌법이 국가 운영 원칙을 제시한다면 헌법 전문은 이 원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출발점이다.

현행 헌법 전문은 40여년 전 1987년 개정된 것으로 당시는 5·18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잔인하게 짓밟은 신군부정권의 연장선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가 불가능하였다.

5·18민주항쟁은 국가권력의 불법 폭력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역사이며 이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

고 지난 12.3불법계엄과 내란 당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의 저항과 연대의 힘은 5·18정신에서 구현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아직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않아, 우리의 헌정 질서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명시하는 것은 과거를 기리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전달하는 일이다.

그동안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이어졌고 드디어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의 표결과

국민투표가 목전에 다가와 있다.

광주를 방문한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5·18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했고 우리는 이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특히 같은 약속을 반복한 국민의 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즉시 헌법 전문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도부가 동참을 계속 거부한다면 깨어있는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전남대학교 6천여 교수·교직원들과 3만학우 그리고 50만동문이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5·18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라!

하나, 이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분명히 하라!

하나, 왜곡과 편향을 넘어 5·18의 진실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는 헌정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합의를 통해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하고,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동참을 촉구한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한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3일

(전남대학교 구성원 일동)

- 전남대학교 교수회·평의회 임원단
-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 전국대학노동조합 전남대지부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전남대지회
-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전남대분회
-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 전남대지회
- 공무원노동조합 전남대지부
-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 전남대학교 민주동우회

본회 회장단,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위해 6천만원 쾌척

류혜경 회장 등 회장단 4명, '새병원 벽돌쌓기' 특별기금 전달식 가져



류혜경 총동창회장(서광병원 병원장·학교법인 인성학원 이사장) 3,000만원 기탁



오형석 총동창회 이사장(탐솔라그룹 회장) 2,000만원 기탁



최희동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광주공고장학재단 이사장) 500만원 기탁



김제성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한남유리 대표) 500만원 기탁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 회장단이 모교 병원의 숙원 사업인 새병원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탰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신)은 4월 27일 정신 원장과 류혜경 전남대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병원 벽돌쌓기 특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회장단 4명이 참여해 총 6,000만원의 발전후원금을 전달했다. 기부에는 ▲류혜경 총동창회장(서광병원 병원장·학교법인 인성학원 이사장) 3,000만원 ▲오형석 총동창회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오형석 총동창회 이사장, 최희동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 김제성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이 '새병원 벽돌쌓기 특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사장(탐솔라그룹 회장) 2,000만원 ▲최희동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광주공고장학재단 이사장) 500만원 ▲김제성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한남유

리 대표) 500만원을 각각 기탁하며 새병원 건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 원장, 윤경철 진료부원장, 김광석 공공

부원장, 주성필 기획조정실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상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장과 이완식 화순전남대병원장도 함께 자리해 동문들의 소중한 나눔에 감사를 표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의료 현장의 전문가로서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이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얼마나 절실한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모교 병원이 지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동문들의 마음이 새병원의 든든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 불구하고 미래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류혜경 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금은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질 최첨단 새병원을 건립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남대 총동창회가 추진 중인 '새병원 벽돌쌓기' 캠페인은 노후화 된 병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갖춘 새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개원 22주년 기념식 성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개원 22주년을 맞아 '다시, 피어나다'를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열고 환자 중심 미래 의료 비전을 제시했다.

4월 23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이날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이호범 화순군부군수, 유관기관장, 임직원, 교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내빈소개, 기념사와 축사, 씨앗심기 퍼포먼스, 기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명을 심다, 희망을 키우다'를 주제로 한 씨앗심기 퍼포먼스는 병원의 새로운 도약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완식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22년간 생명을 지켜온 시간은 또 다른 시작이다"며 "조심으로 돌아가 환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진료 정상화와 의료 질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 원장, 윤경철 진료부원장, 김광석 공공

'5·18 그림복원' 3차 모임 열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혜경)는 4월 14일 전남대학교 동창회관에서 '5·18 그림복원' 3차 모임을 열었다.

본회는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정문 상황을 재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현장을 기록한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역사적 장면을 그림으로 복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총동창회 관계자는 "1980년 5월 18일 당일 현장 사진이 없는 안타까움에 그림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 그림과 동판이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록물로서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한 그림과 동판은 오는 5월 18일 창립 70주년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동문출마자

광역단체장



서울특별시장
정 원 오
(명예회원)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 형 배
(사회과학대학)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강 은 미
(자연과학대학)
정의당



울산광역시장
김 상 옥
(명예회원)
민주당

교육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김 대 중
(인문대학)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장 관 호
(사범대학)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강 숙 영
(사범대학)
민주당

기초단체장

- 광주 동구청장 / 임택(인문대학) / 민주당
- 광주 서구청장 / 김이강(경영대학원) / 민주당
- 광주 남구청장 / 김병내(행정대학원) / 민주당
- 광주 북구청장 / 신수정(정책대학원) / 민주당
- 광주 북구청장 / 김주업(법과대학) / 진보당
- 전남 나주시장 / 김덕수(경영대학) / 조국당
- 전남 목포시장 / 강성희(사회과학대학) / 민주당
- 전남 여수시장 / 서영학(농업생명과학대학) / 민주당
- 전남 여수시장 / 명창환(법과대학) / 조국당
- 전남 광양시장 / 정인화(법과대학) / 민주당
- 전남 담양군수 / 박종원(정책대학원) / 민주당
- 전남 곡성군수 / 박웅두(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국당
- 전남 구례군수 / 장길선(사범대학) / 민주당
- 전남 구례군수 / 이창호(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국당
- 전남 화순군수 / 임지락(농업생명과학대학) / 민주당
- 전남 영광군수 / 이석하(사회과학대학) / 진보당
- 전남 함평군수 / 이행섭(일반대학원) / 무소속
- 서울시 광진구청장 / 김경호(경영대학) / 국힘당
- 서울시 강북구청장 / 이승훈(법과대학) / 민주당
- 경기도 시흥시장 / 임병택(법과대학) / 민주당

광역의원

- 광주 서구1 / 강수훈(법과대학) / 민주당
- 광주 남구2 / 노소영(자연과학대학) / 민주당
- 광주 북구1 / 안평환(인문대학) / 민주당
- 광주 북구2 / 김건안(정책대학원) / 민주당
- 광주 북구2 / 임종국(정책대학원) / 민주당
- 광주 북구4 / 소재섭(정책대학원) / 진보당
- 광주 광산3 / 박필순(인문대학) / 민주당
- 전남 여수1 / 최동익(일반대학원) / 민주당
- 전남 여수2 / 서대현(사회과학대학) / 민주당
- 전남 여수4 / 주연창(경영대학) / 민주당
- 전남 여수5 / 문갑태(일반대학원) / 민주당
- 전남 여수6 / 이석주(산학협력대학원) / 민주당
- 전남 나주1 / 이재창(농업생명과학대학) / 민주당
- 전남 화순1 / 하성동(정책대학원) / 민주당
- 전남 화순2 / 류기준(정책대학원) / 민주당
- 전남 장흥1 / 박형대(농업생명과학대학) / 진보당

기초의원

- 광주 동구 가 / 문선화(예술대학) / 민주당
- 광주 동구 가 / 홍두석(행정대학원) / 민주당
- 광주 동구 가 / 조성오(정책대학원) / 조국당
- 광주 서구 가 / 이현남(일반대학원) / 민주당
- 광주 서구 가 / 김수영(행정대학원) / 민주당
- 광주 서구 나 / 양인기(일반대학원) / 민주당
- 광주 서구 나 / 오광록(행정대학원) / 민주당
- 광주 서구 라 / 박영숙(정책대학원) / 민주당
- 광주 남구 나 / 은봉희(행정대학원) / 민주당
- 광주 남구 나 / 신종혁(농업생명과학대학) / 민주당
- 광주 북구 가 / 김 행(행정대학원) / 진보당
- 광주 북구 가 / 기대서(산업대학원) / 무소속
- 광주 북구 나 / 신정훈(공과대학) / 민주당
- 광주 북구 다 / 이재광(경영대학) / 진보당
- 광주 북구 마 / 배미선(자연과학대학) / 민주당
- 광주 북구 바 / 윤은경(정책대학원) / 민주당
- 광주 북구 바 / 정재성(일반대학원) / 민주당
- 광주 광산구 가 / 백승선(법과대학) / 진보당
- 광주 광산구 다 / 조영임(경영대학) / 민주당
- 전남 여수 라 / 구민호(수산해양대학) / 민주당
- 전남 여수 아 / 고희권 / 민주당
- 전남 여수 아 / 김종길(산학협력대학원) / 민주당
- 전남 여수 자 / 최정필(공과대학) / 민주당
- 전남 나주 나 / 김정숙(정책대학원) / 민주당
- 전남 나주 나 / 김성보(경영대학) / 진보당
- 전남 나주 / 김철민(경영대학원) / 조국당
- 전남 구례 나 / 김봉용(사회과학대학) / 진보당
- 전남 고흥 가 / 류동철(농업생명과학대학) / 민주당
- 전남 보성 나 / 전상호(농업생명과학대학) / 민주당
- 전남 화순 가 / 류종옥(정책대학원) / 민주당
- 전남 화순 가 / 강재홍(일반대학원) / 민주당
- 전남 화순 가 / 박상범(일반대학원) / 조국당
- 전남 화순 가 / 김지숙(사회과학대학) / 진보당
- 전남 화순 다 / 정학철(농업생명과학대학) / 진보당
- 전남 장흥 가 / 서정란(정책대학원) / 진보당
- 전남 강진 가 / 윤영남(자연과학대학) / 민주당
- 전남 완도 나 / 김세윤(일반대학원) / 민주당
- 전남 해남 가 / 민찬혁(산업대학원) / 민주당
- 전남 해남 다 / 박상정(사회과학대학) / 민주당
- 전남 진도 가 / 최순옥(인문대학) / 진보당
- 전남 진도 나 / 이문포(사범대학) / 민주당
- 전남 무안 가 / 임현수(법과대학) / 민주당
- 전남 영광 가 / 임영민(인문대학) / 민주당
- 전남 함평 나 / 정철성(일반대학원) / 민주당
- 전남 담양 가 / 이기범(공과대학) / 무소속

당신 곁에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제36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는
모교와 동문, 후배를 잇는 가교가 되어
모교 발전을 도모하고 후배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동문들의 자랑이 되는 총동창회,
동문 여러분들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 소중한 동창회비 납부로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에 함께해 주세요.
- ☎ 동문 참여(기고·수상·승진·출판 소식 등) 환영합니다.
- ☎ 사무처 : Tel. 062-528-9946 / Fax. 062-521-9945
E-mail : cnud@hanmail.net

70주년 기념 ‘재학생 아카데미’ 첫 회 성황리 열려

“창업·특수직 진로 탐색 호응”

전남대학교 총동창회가 70주년 기념 행사로 모교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선후배 교류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재학생 아카데미’가 큰 호응 속에 첫 회를 시작했다.

재학생 아카데미 참가 신청은 접수 당일 80여 명이 넘게 몰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최종 30명을 선발해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기존 취업 중심 프로그램과 달리 창업을 주제로 한 실질적 강연과 멘토링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학교 내 대기업 취업 중심 특강과 차별화해 지역 기반 창업과 특수 직군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총동창회는 창업 분야에 특화된 연사를 초청해 올해 모두 6차례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5월 27일 오후 5시 백도 취업강의실 1에서 열리는 2회차 프로그램은 ‘특수직·이색 전문직 특강’으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 김진형 동문과 감사원에 근무하는 동문을 연사로 초청할 예정이며, 당일 신청 참여도 가능하다.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은 “재학생들이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 각 분



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동문회의 위상도 함께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재학생 아카데미는 지역 기



반 창업 사례와 다양한 전문 직군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

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 우수 참여자에게는 내년 동창장학회와 연계한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성료

최현만(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동문 ‘자랑스러운 정외인상’ 수상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창회(회장 이승행)는 4월 24일 광주 베네치아 지산본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동문 간 화합과 학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과 모교 교수, 재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회 ‘자랑스러운 정외인상’ 시상식과 발전기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 첫 수상자로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장)이 선정됐다. 동창회는 최현만 동문이 미래에셋증권 창립 멤버로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었으며, 금융 전문성과 혁신적 리더십으로 증권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와 후원을 통해 후배 양성과 학과 발전에 힘써왔으며, 금융투자협회 부회장과 국회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가 경제정책 발전에도 기여한 점을 선정 이유로 밝혔다.



‘자랑스러운 정외인상’을 수상한 최현만 동문

이날 최현만 동문이 전달한 발전기금은 향후 동창회 논의를 거쳐 학과 발전과 재학생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행사 참석자들은 2부 만찬을

함께하며 선후배 간 친목과 교류의 시간을 이어갔다.

한편 정치외교학과 동창회는 앞으로도 동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후배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대병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우수’

전남대병원이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남대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다 올해부터는 기존 3등급 체계가 5등급(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으로 세분화돼 평가 차별력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거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12일~3월11일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13만8천553개 표본을 조사했다.

전남대병원의 종합 고객만족도(PCSI 2.0)는 전년 대비 0.3점 상승했다. 이중 성과 영역에서 ▲국민행복 ▲신뢰 지표가 각



각 2.5점, 3.9점 등 가장 큰 폭으로 올라 눈길을 끌었다.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전달 품질 ▲환경 품질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달 품질의 세부 항목인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고객 케어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학생 임상 및 위탁교육’이 9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입원 및 외래 만족도 역시 전년보다 모두 상승했으며, 민간 수탁 과제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평균과의 비교에서도 전남대병원은 전 항목에서 평균을 상회했다.

2026 간호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성료

2026년 간호대학 동창회 정기총회가 4월 9일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박숙령 간호대학 동창회장을 비롯한 고문 및 임원진, 본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김영필 사무처장, 재경 간호대학 조정영 동창회장, 최현애 부회장, 김순례, 이숙자 고문, 채덕희 간호대학장과 간호대학 교수진, 간호대학 생과 동문 등 총 19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1부 정기총회, 2부 기념행사, 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 정기총회는 박숙령 회장의 진행으로 진행했으며, 2025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에 이어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이어 임원선거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박인혜 동창회장으로 가결되었고 취임사 및 동창회기 인수인계가 진행되었다.

2부 기념행사는 박숙령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박숙령 회장은 “꽃이



만개하고 초록이 생생한 좋은 계절 4월에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의 마음을 보내주시는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이완식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 류혜경 전남대 총동창회장, 서해현 의과대학동창회장, 박진숙 광주은행 지점장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간호대학 동창회는 모교 발전을 지원하고, 선후배 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겠다”라며 동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이후 장학회의 의결을 통해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실천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7명의 학생(한효원, 문채은, 정화랑, 모주빈, 장성훈, 제현이, 정진주)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가 수여되었고, 기부에는 김순례, 박숙령, 박인혜, 최옥자, 채덕희, 이정희, 채임순 동문이 함께했다.

또 유성희, 김보영, 성호현 간호대 교수에게는 학생 학술연구비가 전달되었다.

류혜경 총동창회장의 축사와 격려금 전달, 조정영 재경 동창회장의 격려사, 채덕희 간호대학장의 학교 현황 보고가 이어지며 2부가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3부 저녁 만찬 후 한연호 이사 진행으로 레크레이션이 펼쳐지며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선·후배 동문 들은 정을 나누며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보냈다.

한편 간호대학 동창회는 1951년에 창립되어, 2026년 현재 76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총동문수는 5,297명에 달한다.

/글= 간호대학동창회

전남대 교수 170여명 “미국·이스라엘, 전쟁범죄 중단해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남대분회는 4월 22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이날 전남대 교수 170여명이 동참한 성명을 발표하고 “전쟁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제인도법 준수와 전쟁 중단을 요구했다.

민교협은 “인권단체인 HRANA 보고에 따르면 이란 사망자 3천636명 중 1천701명(어린이 254명 이상)이 민간인이고, 레

바는 사망자는 2천13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현재 상황이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46년 전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을 겪었던 광주의 역사(5·18 민주화운동)를 기억하는 우리는 학문적 윤리적 책무를 외면할 수 없다”며 모든 분쟁 당사국의 국제법 준수, 민간인 보호 의무 이행, 국제 사회의 민간인 피해 독립 조사 및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Founded in 1968
The best provider of semiconductor packaging and test services
Trusted partner for more than 300 companies
Global network in Asia, Europe and US

Connecting People and Technology

World Best Semiconductor Packaging and Test company

영코테크놀로지코리아 | 주
amkor.com

부평사업장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110	TEL. 032-540-3114
광주사업장	광주 북구 영로로 100	TEL. 062-970-7114
송도사업장	인천 연수구 송도미레로 150	TEL. 032-728-4114

전남대, 통합 20년 ‘성장 궤적’ 한눈에

광주·여수 순회 전시...188점 아카이브 공개



전남대학교가 통합 20년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진전을 광주와 여수 일원에서 순회 전시로 선보이고 있다. 사진전은 4월부터 전남대학교 용지관 전시장(광주캠퍼스), 청경마루(여수캠퍼스)에서 열렸고,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여수시의회 작은갤러리에서 순회 전시된다.

전시는 광주와 여수캠퍼스의 주요 역사 장면을 테마와 연대별로 재구성한 총 188점(사진 177점, 전대 기사 11건)으로 꾸며졌다. 이 가운데 50점은 20여 개의 아날로그 패널로 전시되며, 디지털 영상 콘텐츠는 SNS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로도 함께 공개된다. 특히 일부 아날로그 패널 사진은 여수캠퍼스 개교 100주년 당시 선보였던 자료를 활용해 의

미를 더했다.

1909년 창학 이후 1952년 거점국립대로 출범한 전남대학교는 2006년 수산·해양 분야 특성화 대학인 여수대학교와 통합을 통해 현재 17개 단과대학 체제를 갖춘 지역 거점 국립대로 도약했다. 두 국립대학의 통합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지향적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여수캠퍼스는 통합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2005년 대비 2025년 기준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약 7배 증가했고, 연구비 수주액은 3.8배, 1인당 연구비는 4.8배 확대됐다. SCIE 논문 실적 역시 2008년 대비 4.5배 증가하는 등 교육과 연구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대, 박사과정 등록금 면제 전면 확대...연구 인재 유치



전남대학교가 박사과정 등록금 면제 대상을 전면 확대하며, 연구 인재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남대는 2026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박사과정 첫 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을 기존 본교 졸업생에서 타교 출신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일제 신입생으로 확대한다.

전남대는 앞서 2025년 10월, 본교 졸업생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박사 도약장학금’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확대는 도입 6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로, 적용 범위를 전면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전남대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전일제 신입생은 출신 대학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첫 학기 등록금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주정민 전남대 대학원장은 “박사과정은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핵심 단계”라며 “출신 대학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연구 의지를 갖춘 인재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대-ACC, ‘K-민주주의’ 세계 콘텐츠로 만든다

전남대학교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K-민주주의를 세계가 공유하는 문화콘텐츠로 확장한다.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전남대의 역사적 서사와 ACC의 글로벌 문화 플랫폼이 결합되며, K-민주주의의 콘텐츠화와 글로벌 확산이 본격화된다.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K-문화콘텐츠 글로벌 확산 공동 프로그램 추진 ▲해외 협력 전시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 연계 ▲전남대학교 학생 대상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양 기



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전남대학교의 민주주의 서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ACC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결합해, 광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문화콘텐츠로 재해석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개한 철쭉을 기대하며 오른 보성 일림산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 2026년 5월 정기산행기

5월 2일 정기산행일(매월 첫 번째 토요일), 전남대학교총동창산악회(회장 김영필) 회원들은 부쩍 포근해진 봄바람을 맞으며 보성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오늘 산행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에 위치한 일림산이다. 정상 높이는 667.5m로 등반하기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억새로 두 가지로 유명해 등산객은 물론 일반인도 많이 찾는다. 특히

일림산은 100ha 이상의 대규모 철쭉 군락지를 자랑하는 전국 최대의 철쭉 명산으로, 매년 5월 초 용추계곡 일원에서 철쭉 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축제가 열린다.

산행 당일은 축제 시작이라 많은 사람이 몰리고, 철쭉은 만개하면서 화중인반(花中人半)을 기대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시간에 출발하면서 오히려 인파가 물리는 시간을 피했고, 4월에도 영하의



밤 기온에 냉해를 입었는지 철쭉은 봉오리 채로 말라서 미처 만개(滿開)를 못 한 상태였다.

용추계곡 다리를 지나 첫 갈림길에서 왼쪽 편백숲 방향으로 이동했다. 두 차례 임도를 가로지른 후에야 드디어 철

쭉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다. 철쭉을 감상하며 정상에 오른 일행은 부근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준비해 온 점심을 나누기 시작했다. 봉우리 두 개를 넘은 다음 골치에서 용추계곡으로

내려와 갈림길까지 돌아왔다. 편백숲에서 피톤치드로 산림욕을 한 다음, 한바탕 흥겨운 놀이판까지 벌인 후 출발했던 주차장으로 돌아와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6월 6일(토요일)에는 남도산행을 주제로 고흥 팔영산을 가고, 7월 4일(토요일)에는 명산기행을 주제로 강원도 정선에 있는 백운산을 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서재관 총무(010-6661-1800)에게 하면 된다.

/글=강경민

(전남대총동창산악회 산악대장)



“광주사랑의 광주사랑” ⑤2 무등산은 서석대와 입석대에서 나온 이름이다

글·그림=김길남(지리교육·77) 동문

무등산은 정상 부분에는 기둥을 닮은 돌이 많이 모여있다. 무등산 정상의 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같은 무릿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들은 무등산이 불을 뿜는 활화산이었을 때 형성된 주상절리다. 무등산이라는 이름은 이런 무릿돌에서 나왔다. 돌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에서 ‘물(衆) 돌 산’이 나오고, 이것이 ‘무돌산’을 거쳐서 ‘무등산’이 된 것이다. 한자가 들어 온 뒤에는 무등산(無等山)이라는 멋진 이름을 받았다. 등급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빼어난 산이라는 뜻이다. 어떤 이는 이를 민주주의와 관련시키기도 한다.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성지에 자리잡은 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5·18 광주 민주항쟁을 떠올리는 듯하다. 광주의 옛 이름인 무진주(武珍州)도 무등산에서 유래하였다. 물돌→무돌에서 무와 같은 음을 가진 호반 무(武)를 쓰고 돌 석(石) 대신에 보다 멋진 뜻을 가진 보배 진(珍)자를 가져온 것이다. 조강봉 선생에 따르면, ‘珍’자는 ‘보배 진’이지만, ‘珍’의 훈인 ‘보배’는 아름다운 돌을 갈고 닦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珍’의 훈을 ‘돌’이라 읽었다고 한다. 설 립(立) 돌 석(石)으로 쓰는 입석대(立石臺)는 우리 말 ‘서있는 돌’에 한자를 입힌 것이다. 우리 말을 그대로 쓰는 ‘서석대’도 나중에 한자로 옷을 바꿔 입을 때, 상서(祥瑞)로운 돌(石), 서석(瑞石)이라는 멋진 이름표를 달게 된다. 서석(瑞石)은 무진(武珍)과 함께 광주의 이름이 되는 영광을 차지한다. 무등산과 관련된 지명은 서석동, 서석고등학교, 무진중학교, 무진대로 등 여러 곳에 남아있다. 무등양말, 무등일보, 무등도서관, 무등중학교, 무등경기장(기아 챔피언스 필드) 등의 이름도 광주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있다.

서천건설 주식회사 瑞泉建設(株)
SEOCHUN CONSTRUCTION CO.,LTD

www.seochun.kr

2026년 서천은 우리모두 좋은 방향으로
목표중심에 서 있을때
우리 서천인은 함께 그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대표이사 회장 김 응 일 (토목공학과 68卒)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9 청림빌딩 5층
Tel. 02-549-9312~4 Fax. 02-514-5951 E-mail. seochuncon@daum.net

용봉리더스포럼, ‘AI 사피엔스 시대의 생존전략’ 포럼 성황

용봉리더스포럼(회장 박양수)은 4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제4차 포럼을 열고 ‘AI 사피엔스 시대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과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공지능 분야 권위자인 최재봉 교수가 연사로 나서 AI 시대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도 참석해 포럼의 위상을 높이고 동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최재봉 교수는 강연에서 현재를 ‘AI 사피엔스 시대’로 규정하며 “생성형 AI를 인간의 뇌

일부처럼 활용하는 새로운 문명 전환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AI 기술이 군사·경제 분야 전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공지능 기반 연산 능력과 데이터 경쟁력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 발전이 산업 구조와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각과 전략

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90분간 이어진 강연에서 최 교수는 참석자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의 전환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존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AI 시대의 흐름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글=위성암 서울총동창회 사무총장

경기교육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교육총동문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수원유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동문 간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선후배 동문 28명이 참석했으며, 표미라(음악·82) 동문의 특별 공연과 서울동창회 심재곤 회장의 축사가 더해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남대라는 공동의 인연 속에서 각자의 교육 현장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공유하



며 동문 간 유대감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동문들은 “서로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확

무등지부, 4월 정기모임 개최



본회 무등지부 4월 정기모임이 4월 27일 오후 6시 30분 두암동 등촌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꽃이 만개한 봄날을 맞아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황을 나누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영태, 김창현, 손희하, 변연학, 강경민, 정현철, 윤현두, 김창호, 이태욱 동문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를 이어갔다.

인문학트레킹회, 김정희 고택 문화탐방 진행

서울총동창회 인문학트레킹회(회장 강영남)는 4월 25일 충남 예산 일원에서 정기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에는 동문 7명이 참여했으며, 추사 김정희 고택과 수덕사, 수덕여관, 선미술관 등을 둘러보며 전통문화와 예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인문학트레킹회는 매월 네 번째 토요일 정기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 천마산 일원에서 야생화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탐방은 오는 5월 23일

‘용봉 서화회’ 발족, 오는 10월 첫 전시회

서울동창회 예술인 모임인 가칭 ‘용봉 서화회’(회장 강영남)가 공식 발족하고 오는 10월 첫 전시회를 개최한다. 용봉 서화회는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모교와 전국 동문 작가 간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재 40여 명의 동문 작가들이 참여해 전시를 기획 중이다. 제1회 전시회는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전남대 미술 전공 교수와 대학원생, 학사 출신 작가를 비롯해 세계적인 서예가 이당 김용신



박사 등이 참여한다. 한국화, 서양화, 서예, 도예 등 다양한 분야 작가 25명이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 주제는 ‘예향의 숨, 용봉의 걸’로 정했으며, 예향 광주의 예술적 전통과 전남대 동문 예술인들의 창작 정신을 담아낼 계획이며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와 서울총동창회가 후원한다. /글=위성암 서울총동창회 사무총장

동창회보에서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보도해 드립니다.

이메일 :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취임·승진·수상·출판 등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게재를 희망하는 동문은 관련자료(사진포함)를 보내주세요. <cnud@hanmail.net, 총동창회 사무처 062-528-9946>

■ 이형석(대학원 정치학사) 동문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취임



이형석(대학원 정치학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동문이 제7대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사업자의 상호 협력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기관으로, 공제사업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방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이형석 동문은 광주은행 재직 시절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뒤 정계에 입문해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비례대표로 광주시의회에 입성했고, 2002년 재선에 성공하며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이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2007~2008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2012~2014년)을 거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북구을에 당선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광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지역 조직을 이끈 바 있다.

■ 박홍주(치의학·88) 동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차기 회장 당선



박홍주(치의학·88,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 동문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1959년 창립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구강, 악안면, 턱 영역의 질환 치료뿐 아니라 학술 연구, 전문의 수련, 교육과정 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로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표준과 정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최병윤(행정대학원 석사) 동문

광주서 '경찰의 별' 경무관 5년 만에 나와



광주경찰이 5년 만에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을 배출했다. 경찰청은 4월 3일 최병윤(행정대학원 석사, 광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동문을 비롯한 28명을 경무관 승진 임용자로 내정했다. 최병윤 동문은 순천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불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나왔으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순경 경제 181기로 경찰에 입직했고 전남청 경무계장·순천서장·광양서장, 광주청 경비과장·정보과장 등을 지냈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광주청에서 경무관 승진자가 나온 건 2021년 12월 박우현 당시 공공안전정보외사과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 김인영(의학·87) 동문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장 선임



김인영(의학·87, 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동문이 제31차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정위기능 신경외과는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비롯해 편측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뇌전증, 파킨슨병 등 기능성 뇌질환을 수술로 치료하는 고난도 분야다. 김인영 동문은 화순전남대병원 뇌종양 전문클리닉의 핵심 의료진으로 감마나이프 시술 등 정밀 치료를 선도하며, 난치성 뇌질환 치료와 방사선수술 분야에서 임상과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 이상식(회계·81) 부회장

한국택시광주협동조합(콕택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앞장



이상식(회계·81) 부회장이 한국택시광주협동조합(콕택시)이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주목받고 있다. 한국택시광주협동조합은 2020년부터 광주카리타스근로시설 정기 후원단체로 활동하며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조합은 전국 운수업계 최초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친절과 배려 중심의 운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병원 헌혈증 기증, 장기기증 서약 캠페인, 반딧불봉사단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익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오세규(건축·83) 동문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취임



오세규(건축·83, 전남대학 건축학부 교수) 동문이 국내 도시설계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인 한국도시설계학회 제14대 회장으로 4월 18일 취임했다. 한국도시설계학회는 약 7,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규모 학회로, 도시설계 분야의 실험적 연구와 정책·현장 연계를 통해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해온 권위 있는 학술단체다. 오세규 동문은 학회 창립 초기부터 참여한 창립회원으로, 지역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행복한 농어촌을 만듭니다.
땅과 물, 사람과 마을을 가꿔 농어촌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었습니다.
영농로, 휴양로, 노닐로, 행복로, 농산물 마케팅로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농지·농산물·농촌이 연결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국가품질명장
기술사 **김재식**

【지地】 식량인프라 조성
【수水】 친환경 용수관리
【인人】 농지 플랫폼 구축
【촌村】 농어촌공간 개발

K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상담/문의 **1577-7770**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기억하며, 전남대학교 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농업인에게 믿음, 소비자에게 만족을...

농산물 유통을 선도하며 농업인 여러분과 믿음으로 함께 합니다.

총무기획부/이사 농업경제학/박사 **김현유** (농경학/석/박사후)

(주)호남청과
광주광역시지정 도매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6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 3층
Tel : 062-612-6000 Fax : 062-655-0427
E-mail : hyunyu89@gmail.com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정섭(미술·82) 동문

‘꽃-사랑에 머물다’ 전시회



이정섭(미술·82) 동문의 기획 초대전 ‘꽃-사랑에 머물다’가 곡성 갤러리107과 스트리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여인과 꽃의 이미지를 작가 특유의 시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꽃과 사랑, 자연과 인간의 순

환을 따뜻한 색채와 부드러운 화면 구성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정섭 동문은 “꽃과 여인, 사람과 자연의 흐름을 통해 우리 곁에 늘 머물고 있는 사랑의 존재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정섭 동문은 18회의 개인전을 연 중견 화가로 대동미술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과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문화센터에서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와 강남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전남대병원

고려인광주진료소서 현장 진료



전남대학교병원 봉사단 ‘동행’이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광주진료소를 찾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정신 전남대병원장(신경외과 교수)이 직접 진료 현장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병원

장은 신경외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고려인 환자들을 세심히 살피며 직접 인술을 펼쳤으며, 김광석 교수(성형외과)·윤현주 교수(순환기내과)·김유일 교수(호흡기내과)·김태영 교수(산부인과) 등 각 분야 전문의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통역 자원봉사자와 보건의료계 학생 20여명도 참여해 원활한 진료를 지원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봉사는 지역사회 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 정승일(의학·92) 동문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 취임



정승일(의학·9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동문이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4월까지 2년이다. 정승일 동문은 오랜 학회 활동과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요로생식기감염 분야를 이끌 적임자로서 신뢰를 받아 오고 있다. 정승일 동문은 근거 기반 진료지침 고도화, 감염 예방 교육 및 공공보건 사업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 윤상원(정치외교·71) 열사

‘2026년 우리고장 위대한 대한인’



광주지방보훈청이 추진하는 ‘2026년 우리고장 위대한 대한인’ 5월의 인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쟁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최후의 대변인, 윤상원(정치외교·71) 열사가 선정됐다. 윤상원 열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민주투쟁 회보’를 9호까지 제작·배포해 광주의 진실을 대내외에 알렸다.

총동창회 주요 행사 일정

- 5월 11일 언론인 오찬감담회
- 5월 12일 여수캠퍼스 통합20주년 기념행사
- 5월 14일 해남지부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5월 14일 5·18민주묘지 참배
- 5월 16일 창립70주년 기념행사 (민주길걷기, 제막식, 기념식)
- 5월 18일 민주공원 준공식
- 5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강연
- 5월 20일 전남대 봉황숲 조성기념 행사
- 5월 27일 재학생 아카데미(특수직)
- 5월 30일 여수지부 골프대회
- 5월 30일 의대동창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류혜경 총동창회장 주요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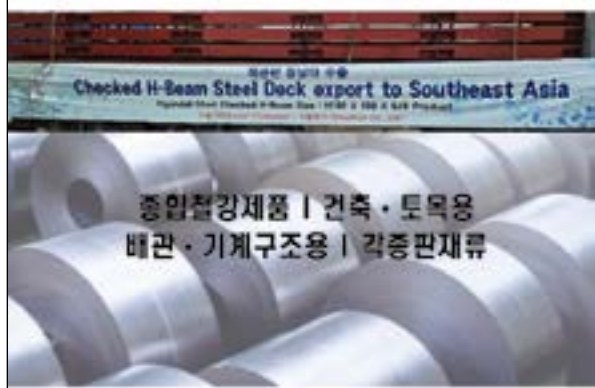
- 4월 5일 제1회 전남대학교 5·18캠퍼스 마라톤대회 개최식
- 4월 7일 용현회 정기총회 겸 집행위원회
- 4월 9일 간호대학동창회 정기총회
- 4월 18일 4개대학 골프대회
- 4월 23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개원 22주년 기념식
- 4월 27일 전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 전달식
- 4월 28일 용봉리데스포럼

全南大學校同窓會報



- 발행인 : 류 혜 경
- 편집인 : 김 영 필
- 발행처 :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중흥동)
- 광고문의 : 062) 528-9950
- 062) 528-9946
- 홈페이지 : <http://home.jnu.ac.kr>
- E-mail : cnud@hanmail.net

**스틸콘(주)**
대표이사 지중곤(화학공학 91)



중합철강제품 | 건축·토목용
배관·기계구조용 | 각종판재류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외로 201
Tel : 062-515-7970 Fax : 062-515-7968
E-mail : steelkon@hanmail.net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IP영상, 방송시스템 및 IT솔루션 전문기업**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자!’
라는 신념으로 달려왔습니다.

- IP방송솔루션
- IP영상동보
- 스마트표출시스템
- IPT시스템
- 영상회의시스템
- 연구개발(기업부설연구소)

대표이사 이 만 선 (2024)
본 세 전남무안군 신흥읍 추성리 224-1 동원빌딩 101호
광 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봉곡로 888번길 43-9
연구소 33710 수산시 일동구 일동로 100A를 220호
TEL : 062-389-3000 FAX : 062-382-4481
www.osic.co.kr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연과사랑 남도숲**
종합산림복지전문업

대표 김 효 선 (산관 2021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용봉인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동창회비는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형편의 학생 지원, 모교 발전, 동창회 발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동문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류 혜 경 배상

▷ 임원회비 ◁

회 장 : 3,000만원 이상 상임부회장 : 300~500만원 이상 상 임 이 사 : 30만원 이상
이 사 장 : 1,500만원 이상 부 이 사 장 : 200만원 이상 이 사 : 20만원 이상
고 문 : 30만원 이상 감 사 : 200만원 이상
자문위원 : 30만원 이상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3-127-004515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일반회원회비 ◁

일반회비 : 3만원 이상 평생회비 : 50만원 이상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08738 (예금주 : 전대총동창회)

▷ 장학기금 ◁

계좌번호 : 광주은행 072-107-339964 (재)전남대학교동창장학회

※ 장학기금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 연도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다른 분의 명의로 송금하시거나, 명단이 누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 Tel. 062-528- 9946 / Fax. 062-521-9945 / E-mail. cnud@hanmail.net

Ⅰ 연도별 장학금 지급현황

년 도	인원수	금 액
1992년	15	7,500,000
1993년	15	7,500,000
1994년	15	7,500,000
1995년	15	7,500,000
1996년	30	15,000,000
1997년	50	30,000,000
1998년	50	30,000,000
1999년	27	16,000,000
2000년	30	18,000,000
2001년	30	18,000,000
2002년	26	16,000,000
2003년	30	17,500,000
2004년	30	38,400,000
2005년	30	38,000,000
2006년	30	38,400,000
2007년	31	39,600,000
2008년	29	37,200,000
2009년	29	37,200,000
2010년	29	36,800,000
2011년	27	50,700,000
2012년	30	55,300,000
2013년	32	59,700,000
2014년	32	59,700,000
2015년	29	49,305,000
2016년	28	57,500,000
2017년	23	57,500,000
2018년	36	63,500,000
2019년	24	47,500,000
2020년	24	48,300,000
2022년	59	94,000,000
2023년	24	48,000,000
2024년	25	75,000,000
2025년	33	113,500,000
2026년	27	81,000,000
합 계	994	1,416,605,000

동창회비 납입 동문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1~3월 분

임원회비 (1월 1일~3월 31일)

회 장

▲류혜경(의학·76) 3,000만원

이사장

▲오형석(불어불문·83) 1,500만원

상임고문

▲정인채(토목공학·65) 30만원

고 문

▲김남전(경제·60) 30만원

▲김성전(의학·59) 30만원

▲김세자(간호·71) 30만원

▲설희석(화학공학·57) 30만원

▲양한모(의학·69) 30만원

자문위원

▲김영구(행관·23기) 30만원

▲김영진(의학·73) 30만원

▲김제승(자원공학·72) 30만원

▲김종근(농업경제·71) 30만원

▲신종봉(수의학·71) 30만원

▲최정원(농업경제·70) 30만원

▲최철수(전기공학·68) 30만원

수석상임부회장

▲최희동(원예·74) 200만원

상임부회장

▲윤영주(회계·85) 300만원

▲최옥자(간호·87) 100만원

단과대회장

▲김용환(수의·85) 50만원

부회장(집행위원)

▲임현필(치의학·94) 50만원

부회장

▲강은미(해양·89) 50만원

▲강훈열(사법·86) 50만원

▲김일원(음악·89) 30만원

▲김재찬(행정석사·12) 50만원

▲김정희(행정·86) 50만원

▲김현종(정치외교·90) 50만원

▲김희경(음악·84) 50만원

▲노재형(미생물·92) 30만원

▲문 인(토목박사·96) 50만원

▲박성민(농업경제·91) 50만원

▲박태홍(임학·78) 50만원

▲박필순(불어불문·93) 50만원

▲범희승(의학·76) 50만원

▲소영호(경최·24기) 50만원

▲오병석(의학·91) 50만원

▲이진안(경영석사·6) 50만원

▲장상문(농공학·81) 30만원

▲전훈민(토목·12) 50만원

▲최기연(법학·95) 50만원

▲최해덕(사법·81) 20만원

▲황선욱(의학·66) 50만원

상임이사

▲문종민(체육·75) 20만원

평생회비 (1월 1일~3월 31일)

▲김보현(금속공학·79)

▲고동규(화학공학·06)

▲김희경(음악·84)

▲박준수(기계공학·73)

▲송경희(영어영문·86)

▲임준섭(의학·84)

연회비 (1월 1일~3월 31일)

간호대학

▲김혜영(간호·91)

▲안정옥(간호·77)

▲문정선(간호·74)

경영대학

▲강대성(무역·76)

▲강부암(회계·90)

▲기원경(경영·86)

▲김기문(경제·64)

▲김봉옥(회계·83)

▲김영곤(경영·87)

▲김영철(경영·75)

▲박임순(지역개발·89)

▲왕진태(경제·83)

▲한동철(무역·75)

▲한성수(회계·82)

▲한창안(무역·74)

공과대학

▲강대욱(토목공학·58)

▲김경전(건축공학·66)

▲김성수(전기공학·82)

▲김영남(전기공학·70)

▲김영무(전기공학·61)

▲김용백(건축공학·68)

▲김은지(정보통신·99)

▲김현호(금속공학·68)

▲김형주(화학공학·80)

▲박순식(토목공학·83)

▲서금렬(공업화학·85)

▲송석현(전기공학·68)

▲염종환(기계공학·78)

▲오일환(전기공학·76)

▲윤대좌(전기공학·72)

▲이봉욱(금속공학·81)

▲이정일(무기재료·85)

▲이한민(토목공학·87)

▲이현균(기계공학·79)

▲장상욱(전기공학·72)

▲장철희(자원공학·85)

▲장 희(화학공학·77)

▲정달성(전기공학·72)

▲정유홍(기계공학·74)

▲정한수(건축공학·70)

▲정호채(기계공학·79)

▲조영기(건축공학·72)

▲천양기(건축공학·70)

▲최문길(전기공학·70)

농업생명과학대학

▲강 용(낙농·85)

▲기갑서(농업경제·68)

▲기성주(농생물·84)

▲김규상(임학·62)

▲김재엽(농화학·65)

- ▲박금종(농학·73)
- ▲박찬선(농업경제·70)
- ▲서영권(농학·69)
- ▲양종식(농업경제·66)
- ▲이영승(농화학·83)
- ▲정기환(식물생명·14)
- ▲최안성(축산·82)

법과대학	
▲김철영(법학·57)	
▲강한주(공법·86)	
▲강훈열(사법·84)	
▲김용환(법학·60)	
▲박병철(법학·75)	
▲이두백(법학·69)	
▲이호문(사법·84)	
▲임성환(법학·74)	

- ▲황의봉(법학·58)
- ▲박경자(지리교육·79)
- ▲윤준서(생물교육·84)
- ▲이명자(지리교육·86)
- ▲장길수(생명교육·82)

사회과학대학	
▲김형국(정치외교·72)	
▲손정태(문헌정보·81)	
▲한성수(정치외교·72)	
수의과대학	
▲고태오(수의·80)	
▲성광일(수의·53)	
▲안익순(수의·69)	
▲유동현(수의·56)	
약학대학	

- ▲윤서영(약학·84)
- ▲김동욱(의학·79)
- ▲남광우(의학·78)
- ▲김종성(의학·78)
- ▲문형한(의학·68)

인문대학	
▲강상옥(사학·88)	
▲고지문(영어영문·59)	
▲박창준(중어중문·84)	
▲지경래(국어국문·58)	
▲황순영(영어영문·76)	
자연과학대학	
▲유송권(물리·08)	
경영전문대학원	
▲고병선(경관·29기)	

- ▲김태호(경영석사·26기)
- ▲조명옥(여성지도자과정·1기)
- ▲채복경(간호·05)
- ▲이일순(체육·16)

법학전문대학원	
▲차기현(법학석사·10)	
정책대학원	
▲배병규(정책·99)	
▲유병희(사회문화복지정책·17)	
▲윤호근(사회문화복지정책·36기)	
▲정현철(행정석사·85)	

▲무기명(00·00)

2026년 4월 분

임원회비 (4월 1일~4월 30일)	
자문위원	
신윤숙(가정교육·72)	30만원
유두석(정치외교·71)	30만원
윤현두(자원공학·70)	30만원
장문재(여성지도자과정·04기)	30만원
홍종희(기계공학·70)	30만원
상임부회장	
김종선(의학·92)	300만원
단과대회장	
박연옥(식품영양·90)	50만원
박인혜(간호·73)	50만원
부회장	
김명균(사학·85)	50만원
김상경(축산·93)	50만원
김형수(정치·22기)	50만원
노복균(의학·91)	50만원
노진양(산업공학석사·93)	30만원
박 원(행정·85)	20만원
상임이사	
최종명(정치외교·1)	30만원

평생회비 (4월 1일~4월 30일)	
정웅길(의학·59)	
연회비 (4월 1일~4월 30일)	
간호대학	
김혜영(간호·91)	
경영대학	
김성희(경제·87)	
김재풍(경제·83)	
박광호(행정·92)	
윤명호(무역·67)	
임문규(경영석사·73)	
최성주(경제·80)	
최태화(경영석사·00)	
공과대학	
김관현(토목공학·61)	
김도중(토목공학·70)	
김부용(화학공학·71)	
김성덕(금속공학·68)	
박영재(신소재·96)	

손동일(건축공학·83)	
이종호(무기재료공학·82)	
이한묵(토목공학·58)	
정정호(화학공학·69)	
조대우(요업공학·69)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경철(농업경제·87)	
임행진(임학·52)	
최안성(축산·82)	
법과대학	
임정택(법학·63)	
사범대학	
박종근(불어교육·78)	
사회과학대학	
박하일(정치외교·54)	
예술대학	
김백선(미술·96)	
의과대학	
남광우(의학·78)	
박경옥(의학·57)	
윤영의(의학·61)	
이해진(의학·65)	

조창호(의학·65)
인문대학
김재봉(국어국문·70)
경영대학원
임종학(경영석사·02)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류인섭(원예·87)

<대학원 약칭 범례>

- 경관 :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 경최 :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 정관 : 정책대학원
- 정석 :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 정최 : 정책대학원 최고정책과정
- 산관 : 산업대학원
- ※ '행정대학원'이 '정책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경영대학원'이 '경영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바른길
www.barungil.co.kr

법무법인(유한)바른길은 여러분의 좋은 이웃으로 우리 사회의 바른 길잡이로 우뚝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문정현
법학박사 80인

최종명(정치외교·1)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한상중

김관현(토목공학·61) 대표변호사

충무 사무소
충주 서구 상무동 80 (전문컨설팅 1층)
Tel. 042-381-0050 Fax. 042-381-0240

입원분사무소
충주 동구 동명로 101-1 (변호사회관 2층)
Tel. 042-232-0090 Fax. 042-232-1308

금산C&C(주)

창호제조·금속구조물창호공사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의 그날까지 언제나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만으로 금산C&C(주)는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전현수
E-mail kumsan054420@hanmail.net

본 사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99-17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90길 28 대흥빌딩 4층

1 공 장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미로 22

2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우로 248

Tel : 062-373-7643 Fax : 062-373-7647

Tel : 02-565-7643 Fax : 02-565-7644

Tel : 031-785-7642-3 Fax : 031-673-4951

Tel : 062-373-7643 Fax : 062-373-7647



AF INVESTMENT

AF W파트너스 | AF W자산운용 | AF Infra Ventures

(주)에이에프인베스트먼트 | 대표/CEO 양관운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25F T_02.6197.9931 F_02.6197.9930